

## 머리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은 통속적인 유행가 가사에서부터 철학과 종교에서의 고뇌 깊은 사유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물음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유신론적 입장에서 절대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보느냐, 아니면 무신론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물질은 스스로 존재해 있었고 생명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느냐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기원의 질문에 대한 상반되는 두 대답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진실의 파악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가 하는 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 본 「통합연구」를 통해 “창조와 진화: 창조 연대와 기원 논쟁”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은,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 존재의 의미가 왜곡되어 가는 지금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뜻깊다고 하겠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원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됨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점에서 현대 기원론의 주류를 이루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통한 적절한 비판과, 아울러 창조론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담긴 양승훈, 윤석찬, 조정일, 김남득, 심영기 박사 등의 논문들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국창조과학회의 허성욱 선생과 조덕영 간사의 서평은 최근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글이었으며

그 외에 일반 논문으로서 전강수 교수의 경제 개혁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을 실었다.

기원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인간 자체의 한계성에 따른 과학적 혹은 학문적 탐구가 한계성에 부딪칠 때마다 느끼는 아픔들을 함께 치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같은 작업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질 것을 기대해 본다.